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thriving)’ 경험의 의미*

공 춘 옥[†]

김 봉 환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성장(thriving)’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봄으로써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장’ 경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20대에서 40대의 여성으로 일정기간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눈덩이표집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의 반 매넨(van Manen)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의미에 집중하고 경험한 그대로의 탐구와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및 글쓰기를 하였다. 연구과정 중에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할 때도 현상학적 연구자의 자세를 유지하며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성장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상위 주제와 19개의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6개의 상위 주제는 <치유의 변주곡 연주하기>, <외상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자경(自敬)하기>, <타인, 세상과 온전하게 소통하기>, <원하는 생애사 건축하기>, <또다른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있어서 외상을 통한 ‘성장’에 관련된 질적연구가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외상을 통한 ‘성장’의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어떤 측면에서 역량이 강화되고 삶을 더 성숙하게 살게 되었으며,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또,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의 증상에 함몰되지 않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믿으며 상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제어 : 성폭력, 성장(thriving), 외상, 현상학적 연구

* 본 연구는 공춘옥(2014)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thriving)’ 경험의 의미’를 수정 및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공춘옥, (140-742)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번지, E-mail : horimy96@hanmail.net

여성의 20-30%가 아동기 혹은 성인기에 성폭력 피해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ussell & Bolen, 2000; 박 경, 2006; 권해수; 2007).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의 자아 경계를 침해당하며, 우울, 자기 파괴적 경향, 불안, 악몽, 수면장애, 섭식장애를 겪거나 대인관계와 섹슈얼리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낮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Konishi, 2008).

외상과 관련된 이론은 지금까지 외상의 증상이나 진단에 집중해서 외상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둔 병리적 모델을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외상에 대한 치료와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다(Fairbank, Ebert & Costello, 2000; 하진의, 2013).

그러나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증가하면서, 외상에 관한 문헌에서는 외상이 회복해야 할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성장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Carpenter, 1997; Carver, 1998; O'Leary, 1998; O'Leary, Alday Ickovics, 1998; Parry. C., Chesler M. A., 2005).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신 병리나 생활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연치유나 상담 등을 통해서 회복을 하기도 하고, 외상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성장에 이르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느끼기도 한다(DeFrain, Jones, Skogrand & DeFrain, 2003; Bonanno, 2004). 적어도 아동기

성폭력 생존자들의 22%는 성인기에 성공적으로 직업, 학업적 성공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로서의 성공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Grossman, 1999, McGloin & Widom, 2001; Hall, 2009). 이는 다른 외상 생존자들의 성취로서의 성공 경험(20%)과 비슷한 확률이다(Allen, 2005). 아동기 성폭력 피해가 있던 이들 사이에서 이 성공은 심각한 외상을 이겨내는 인간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경험적 문헌들의 구성요소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극심한 위기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성장(thriving),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 긍정성 발견하기(perceived benefits), 긍정적인 관점들(positive aspects), 외상의 변형(transformation of trauma), 이익 발견(finding benefit),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역경을 통한 성장(adversarial growth) 등의 용어로 정의하면서 외상의 긍정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촉진시켰다(Linley & Joseph, 2004; 한노을, 2005).

이 중에 '성장(thriving)'¹⁾은 비교적 새로우고, 경험적인 연구이자 초기 단계이다. 'Thriving'의 사전적 의미는 '번영한, 번창한, 잘 사는'이다(네이버 사전). 이론적으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관련된 문헌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Poorman(2002)은 성장이란 탄력성을 회복하거나 인내력을 가지는 것, 공격에도 손상되지 않는 것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사고나 인식을 전환하는 것처럼 심리적 건강함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기를 동일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1) 본 연구에서 '성장'은 growth가 아닌 thriving임을 밝혀둔다.

건강하게 삶을 촉진할 수 있는 열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장'은, 일반적인 항상성(homeostasis)차원의 탄력성을 넘어서서, 변화나 성장(growth)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전(challenge)으로 내용이 구성된다(O'Leary, 1995). 인간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3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어려움에 압도된다. 3가지 방식에는 생존하거나(survive), 회복하거나(recovery), '성장'하는(thrive) 것이다. 생존은 손상된 측면이 있음에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이고, 회복은 기본선으로 돌아와 이전의 심리사회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장'은 원래의 심리사회적 상태를 넘어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도전에 대처하고 직면하고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전 상태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성장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만나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자신의 외상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적응하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대인관계, 정서, 영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O'Leary, 1995).

Taylor(2004)는 생존하기(surviving)에서 '성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탐색했다. Hall(2009)은 아동기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성폭력을 겪은 후 삶의 적응을 위한 생존하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활력적으로 사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Graham(1994)은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생존하기(surviving)에서 외상을 통해 '성장'하기로 변화할 때 중요한 모습이 있다고 보았다. 타인을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감을 향상시켰고, 여성의 관점으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

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고 보았다.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네트워크를 발달시켰고, 힘을 얻기 위해서 주요타자와 함께 연대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고 했다.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의 긍정적 측면을 연구한 논문은 초기 상황으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적응유연성(권해수, 2002),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회복과정(이명희, 2003),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경험(권해수, 2007), 외상후 성장경험(한노을, 2005), 아동기 성폭력 경험의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김지혜, 2011)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치유, 회복 과정에서의 변화와 그 변화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성폭력 피해에서 생존을 넘어서서 더 활기차고 자기 삶에 고양되거나 집중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에 능숙하게 하는 등의 일이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들은,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피해자(victim)나 생존자(survivor)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만족스러워하고 활력이 있게 살 수 있게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에 대해서 정신병리적인 모델에 근거한 개입 방식을 넘어서, 내담자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신뢰하고 내담자를 역량강화(empowering)할 수 있으며, 상담 장면에서는 '성장'을 상담의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 역시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성장’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성장(thriving)’이란 무엇인가?

방 법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주관이 지니는 체험을 분석하는 학문이다(Spiegelberg, 1970). 그 중에 반 매년(van Menen)에 의하여 체계화된 해석학적 현상학은 실천적 현상학을 표방하고 일상적인 삶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는 실천적 관심이라는 맥락에서 현상학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이근호, 2007). 해석학적 현상학의 출발점은 실재로 우리가 겪어나가는 것으로서의 ‘산 체험(live experience)’의 세계다. 우리가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거나 또는 반성하는 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반성 이전에 직접 겪은 세계 즉, 생활 세계를 연구한다. 현상학자들은 존재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태 자체로 현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판단을 중지(bracketing)하고 있는 그대로 현상에 다가가고자 한다.

성폭력피해에 있어서 ‘성장’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그 의미

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 중에 연구참여자의 삶 속에 형성된 체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드러내고자 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들은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방식으로 행해졌는데, 본 연구 주제의 특성상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쉽게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인이나,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7명의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했다. 연구참여를 동의한 7명의 여성들 중에서 성폭력 피해의 ‘성장’ 경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6명의 대상자를 연구참여자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현재 사회적 활동, 경제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기능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개인상담이나 집단 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²⁾라는 행사에서 스피크 아웃(speak out)을 하는 등 일정정도의 치유 과정을 경험하여 외상을 말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이들로 제한을 하였다. 그리고 성폭력의 경우 PTSD증상 중의 하나인 원사건에 대한 재경험이나 침습적 기억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 원사건을 떠올려도 재경험, 침습적 기억이 현저히 없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참여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이름은 가명으로 하

2) 생존자 말하기 대회란 성폭력 생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지와 격려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받는 집단 치유의 장이다.

였으며, 직업 등도 다소 변경을 하였다.

<김정은> 27세 여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부의 성추행이 있었고 내내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대학 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믿지 않는 등의 2차가해가 있었고 그 이후로 6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산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소규모로 말할 수 있는 모임에 얼마간 정기적으로 참가한 적이 있고, 4년 전 여성단체에서 하는 말하기 회를 참가한 것을 계기로 몇 달간 집단 치유프로그램을 함께했다.

<김가영> 38세 여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몇 년전 단체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지인의 성추행이 있었고 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을 논의하던 중 다른 직원들의 2차 가해가 있었다. 원사건에 대해 친구 등에게 이 사건에 이야기 한 적이 있으며 춤세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소라> 34세 여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 미취학 아동일 때 동네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이 두 차례 있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5년 전 말하기 회를 참가하며 몇 달간 집단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은선> 30세 여성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 미취학 아동일 때 친부에 의한 성추행이 몇 차례 있

었으며 대학생 때 가족에게 폭로했으나 2차가해가 있었다. 원 사건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고 6년 전 말하기 회를 참가하면서 몇 달간 집단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최미희> 30세 여성으로 현재 대학생이다. 유치원 시절에 동네 할아버지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고 20대 초반에 만나던 남자친구에 의한 데이트 성폭력이 있었다. 데이트 성폭력 이후 개인상담을 받았고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성추행 피해는 1년 이상 개인상담을 받은 뒤에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2년 전 말하기 회를 참가하면서 2차가해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였다.

<하미란> 47세 여성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교육 분야 강사이다. 20대 초반에 통성명을 한 정도인 지인에 의한 강간이 있었다. 6년 전 몇 달간 집단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말하기 회에 참여했다. 그 이후로도 소규모의 성폭력 생존자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가 했다.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먼저,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면담용 질문지를 작성하여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이에게 자문을 구하고 예비면담을 2명 실시한 후에 보완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분석을 위해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심층 면담을 통해서 행했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경

우에는 이메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연구 참여자들의 비언어적인 특성을 메모하기도 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이 참가했던 프로그램의 소감문도 참고하였다.

면접 시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심층 면접을 1번에서 3번 정도 실시하였고, 시간은 1시간-2시간 이내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간단한 정보(나이, 직업)를 물어본 후 “어떤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성폭력 피해를 언제 자각했는지”,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어떤 치유나 치료를 했는지”,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느끼는지”, “자신에게 성폭력란 어떤 의미인지”, “그 동안 어떤 변화과정을 겪었는지”, “지금 성폭력 이슈를 떠올렸을 때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지금 심리상태는 어떤지”, 등을 질문하면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van Manen(1990)의 현상학적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분석 절차를 따랐다.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포착하고 드러내고자 했다. 자료와 대화관계를 형성하여 여러 차례 읽기를 반복하면서 자료의 행간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적 연구 논문을 쓴 박사수료생 2명과 자료분석 검토를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자는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성장(thriving)’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

구참여자의 기술에 존재하는 경험을 기초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성폭력에 있어서 ‘성장’ 경험은 6개의 상위주제와 19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이뤄진다. 19개의 하위 주제를 통해서 나타난 상위주제인 ‘치유의 변주곡 연주하기’, ‘외상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자경(自敬)하기’, ‘타인, 세상과 온전하게 소통하기’, ‘원하는 생애사 건축하기’, ‘또 다른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으로서 이 주제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주제들은 표 1의 내용과 같으며, 시간적 흐름 속에서 추출된 경험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치유의 변주곡 연주하기

성폭력에 있어서 ‘성장’에 대한 경험을 보고한 여성들은 자신의 성폭력 이슈에 정면통과하기 위해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내적 힘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치유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 용기, 모험심, 고통에 대한 강한 인내력과 같은 자신의 힘을 키운다. 먼저 여성주의나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각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 직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의 책임을 재평가하며 가해자나 작품을 통해서 분노표출을 하며 무기력한 자신이 아닌 분노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로 거듭난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정서적 지지의 토대를 형성해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수용됨을 통해서 유대감을 향상시킨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서사

표 1.

하위 주제	상위 주제	
정면통과를 위한 통로를 발견함	치유의 변주곡 연주하기	
분노의 돌려차기를 함		
여울목의 징검다리를 함께 건너감		
자신만의 서사를 만듦		
두려움을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점프함		
고통에 오랫동안 담금질함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음		
타인과 자기이슈를 분리시킴		외상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가해자를 한 인간으로 바라봄		
스스로 다독여줌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음	자경(自敬)하기	
자기를 신뢰함		
밀착된 관계로부터 적절한 거리유지함	타인, 세상과 온전하게 소통하기	
타인의 고통을 안을 수 있는 넉넉함		
사회정의를 향한 움직임		
자신의 삶에 전념함		
세상을 향한 비전에 열망함	원하는 생애사 건축하기	
미해결과제를 인정함	또다른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	
2차 가해의 상흔이 남아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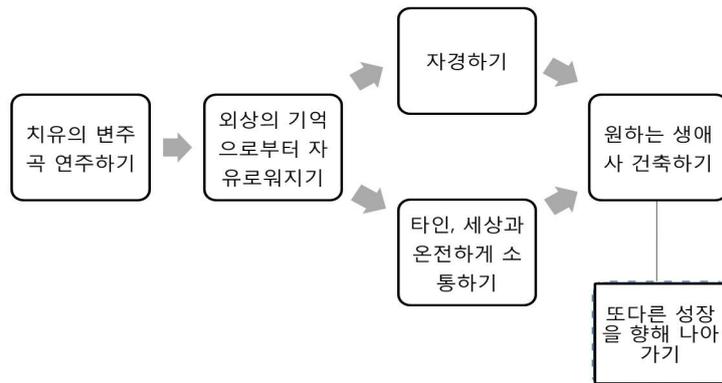


그림 1. 시간의 흐름으로 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경험의 구조

(narrative)를 완성시키며 능동적인 화자로서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의미화할 수 있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말하기대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개방을 하는 모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라는 재평가를 하며 세상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고통에 대한 강인함이 생기고 여러 차례의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만들어낸다.

정면통과를 위한 통로를 발견함

페미니즘을 만나면서, 내 안에 ‘폭력’을 직시할 수 있었던 거 같아. 여러 상황들이 ‘성폭력’의 순간이었구나. 내가 고통스러웠던 게 이거였구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힘들어 했구나. 그리고 페미니즘 언어를 통해서 내 기억을 마구 끄집어 내보았던 거 같아. 그러면서 시원했어. (이은선)

그 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전혀 몰랐었고 교육을 통해서 알았지. 내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들렸지. 그런데 강사가 사례를 드는데 그 사례가 너무 비슷할 때. 그것도 성폭력이구나. 내가 겪은 것도 성폭력이구나. (하미란)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직면할 수 없었던 사건을 인식시켜주는 교육, 페미니즘이라는 외부자극을 통해서 자신의 성폭력을 깨닫는 지각, 통찰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자신의 내적 자원으로서는

설명되지 않고 고통스럽기만 한 경험이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만나 성폭력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내부 언어로는 참조할 수 없었던 일을 외부의 새로운 언어를 수용하면서 이은선은 ‘내가 고통스러웠던 게 이거였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지각력이 생기고 하미란은 ‘내가 겪은 것도 성폭력이구나’라고 문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해석의 토대를 만든다.

분노의 돌려차기를 함

그 전에는 발언하기 전까지는 나 혼자 갖고 있는 분노였지. 분노가 터진 것은 계속 나를 찌르기에 그랬어. 예를 들어서 찌를 때 계속 문제가 있었거든. 내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를 안 다니고 여자를 좋아하고 부모님이 알게 되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나도 딱히 절대 이야기 안 해 그런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했어. 내가 자각하고 나서 스스로 이야기하기 까지는 시간이 꽤 있었던 거 같아. (이은선)

그 때 작품을 했었던 게 칼 그러서 매달고 폭탄 잔뜩 그러서 매달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합리화하고 그 때는 어렸어 라고 자기를 쉽게 용서하고. 아무렇지 않게 나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열을 받았거든. 그런 거 가끔씩 생각해. (이소라)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의 책임을 재평가하고 자신을 침해한 사람에게 책임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분노를 표출한다. 이 분노는 소

모적이지 않고 미워하는 대상과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자기 보호적이다. 이는 분노를 내면으로 억눌러 감추고 자신의 삶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근원을 직면하여 가해자에게 말을 하거나, 작품으로 표현하며 성폭력을 자신의 이슈로서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의식 안으로 통합시킨다.

여울목의 징검다리를 함께 건너감

작은 말하기는 좀 낯설기도 했지만, 그냥 신기했어요. 그냥 까까 먹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막 놀다가도 같이 울고 욱도 해주고 서로 집중하니까 힘이 많이 되었어요. 내일 안보는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고,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는 되게 어려운 사람도 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서로 시원해 하기도 하고. (최미희)

우선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 덕분에 나도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말한 거라서 말 좀 시원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시원했고 뭐랄까 외롭진 않았어. (하미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정서적 지지의 토대를 형성해 고립감에서 벗어나서 수용됨을 통해서 유대감을 향상시킨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증인이 되면서 무력감이나 혼자라는 느낌에서 탈피한다. 이들은 정서적 지지, 공감적

태도라는 사회적 피드백을 통해서 수용을 받으며 자신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

말하기를 과정 자체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서사를 쓰면서 힘들어. 기억이 생생하면서 기억이 안나. 내 기억이 온전한 거야. 너무 어렸을 때고 서사적으로 맞는 걸 계속 질문을 하지. 세세하게 하나씩 떠올릴 때마다 그게 입혀진 기억인지 고민이 되는 거야. 서사를 반복해서 생각한다 말 이야. 하나씩 하나씩 떠올라. 힘들어, 힘들어져.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앞뒤를 정확히 알게 돼. 내가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돼. (이소라)

다 말하지는 않았지. 야금야금 말하기 시작했지. 다 말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 자꾸 말했던 거 같아. 이해된 부분이 자꾸 넓어지니까 그 만큼 그들한테 말하는 거야. 아직도 100% 다 말한 사람은 아직도 없을 거야. 내가 100% 이해를 못 한 거야. 70%까지는 말한 한 거 같아. (하미란)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하기와 다시 이야기하기(restorying)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서사(narrative)를 완성시키며 화자로서 스스로 의미화할 수 있음을 경험한다. 스스로 의미화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언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사건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정서적 기억이 파편화되어서

떠오르지 않았던 기억을 힘들게 다시 떠올리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라는 질문에 자신이 이해된 만큼 스스로에게 답을 해주며 서사를 만드는 기억작업을 능동적으로 하며 이야기를 구성해낸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점프함

친구의 손에 두꺼운 철심같은 것을 빼내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꿈을 꿔더라고. 큰말하기가 한 4개월 정도 했던 작업이었거든. <생략> 되게 뭔가 지지받았다. 지지받는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런 과거에 대한 경험을 슬팠던 거, 화났던 것을 비난이 아닌 형태로 풀어낸 게 재미있었어. 자신감 생겼다는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은선)

큰말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3명 인가 4명이 구경하러 갔어. <생략> 내가 아는 사람이 왔다. 그런데 강사라서 소문난다. 싫다. 괜찮대. 하미란 하지말해. 너무 너무 편했다. 몇 개월씩 심리 치료 받고, 3년을 기다린 거잖아. 말하려고 했고 웬지 내 자신에게 진 거 같은 느낌 2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르잖아. 2명도 돌이 크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2명이 작게 느껴졌어. (하미란)

연구참여자들은 말하기대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개방을 하는 모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라는 재평가를 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

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경계하지 않으며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고통에 오랫동안 담금질함

처음에는 큰말하기 대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을 때야. 두 번째는 내가 말하기에 직접 참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알았을 때야. 세 번째는 영화 찍으면서 좀 재미있었어. <생략>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말하기 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숨겨놓았던 비밀이 또 있더라고.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언젠가는 드러났어. 그니까 원초적인 핵이 드러난 거지. 그 때 진짜 차안에서 그 답을 찾았을 때 엄청 울었지. 한 10년 걸려서 찾은 거 같은데. (하미란)

큰 계기는 부모님한테 사건을 말할 수 있을 때가 컸어. 그 사이에 한 8년 동안 조금씩 변한 게 있어서 참여할 수 있었어. 처음에는 담담했거든. 내가 치유해야겠다 라는 것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 사실 그걸 참여할 때는 어느 정도 회복한 느낌에서 참여했던 거 같아. (이은선)

연구참여자들은 오랫동안 성폭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고통에 대한 충분히 아파하면서 고통을 견디는 강한 인내력을 경험한다. 이들은 이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폭력 대한 이해나 서사를 깊이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번으로 되지 않고 여러 차례의 변형을 경험했고, 자신의 심리적 '성장'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했음을 지적했다.

외상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치유작업을 한 이후에 성폭력의 영향력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감정의 혼란없이 성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에 도전을 하면서 '이전의 상태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내적 힘이 생기면서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느낀다.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이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통합시키면서 타인의 성폭력 이슈에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경계를 지킬 수 있는 통제력이 생겼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가해자를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 존재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로 보고 가해자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가해자를 한 인간으로 여기고 성폭력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더 깊게 이해한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음

그래서 그런지 원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트라우마가 길게 채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몇 달 뒤에는 안정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감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애를 떠올렸을 때 내 마음이 괴롭거나 그 상처가 내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김정은)

떠오르는 것에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인

터뷰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한 적은 있어. 일상에서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 (이은선)

본질적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모든 게 눈 녹듯이 계절이 봄으로 바뀌듯이 아……. 그니까 열쇠가 다 풀리더라고. 이해가 되고. (최미희).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에 대해서 치유작업을 한 이후로 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더 이상 큰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강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원사건이 재경험되는 형태로 떠오르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심한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가해자나 원사건을 떠올렸을 때 감정조절이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이 자신의 경험의 일부로 전환되어 삶의 맥락에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즉, 자신을 압도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했던 외상에 일정 정도 벗어난 것이다.

타인과 자기 이슈를 분리시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그것이 끝났어. 마치 나한테서 없었던 일은 아닌데 없었던 것 같은 느낌. 뉴스에 사건이 있어도 신경은 쓰이지만, 나와 무관한 일이 되었어. (이소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안 해도 되겠다. 성폭력 이슈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그 전에도 막 따라다니

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에 관심도 엄청 많았어. 지금은 그 때랑 다르겠지만, 그랬던 거 같아. 충분히 여기에 쏟을 에너지는 많이 쏟은 느낌이야. (이은선)

연구참여자들은 타인의 성폭력 이슈에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적절하게 분리하고 경계지킬 수 있게 외상을 통해서 ‘성장’한다. 성폭력 이슈에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경계를 지키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균형잡힌 모습이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타인의 성폭력 이슈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이입하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드리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게 변화한 것이다.

가해자를 한 인간으로 바라봄

그 남자애가 그것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본 거 같아.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그 사람 자체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억압된 사회구조이기도 하니까. 개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거나 어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남들이 알면 안 되고, 속여야 하니까 일 꺼야.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 같아. (이소라)

연민은 아니고 그 사람도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 느껴져. 그만큼 돌려줬거든. 인생을 다시 생각하도록 했지. <중략> 사과를 하긴 했어. 물론 충분히 정말 자기의 잘못을 100% 인정해서 한 사과라기보다는 자기는 어쨌든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라고 했지.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

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 인정하도록 했지. (이은선)

연구참여자들이 인간이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고 가해자를 한 인간으로 보는 ‘성장’을 경험한다. 자기 상처에 머물러 본 이으로서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해의 측면이 생겼다. 이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가해자를 가해자 또한 ‘고통을 겪는 사람’, ‘어떤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작은 존재로서 바라보는 다른 경험을 하는 면에서 드러난다. 가해자 나름의 애씀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긴 했어’라고 진정성을 보여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가해자를 마냥 나쁜 사람에서 ‘그것의 피해자’, 사회구조적으로 왜곡된 성인식에 노출된 한 개인으로 바라보며 가해자에 대한 이전과 다른 시선을 갖게 된다.

자경(自敬)하기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기보호(self care)하는 측면이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에 주인이 되어, 자기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자신도 받아드릴 수 있다는 자기 수용과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통해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다독여줌

나한테 기억이 떠오르거나, 떠오르지 않

있던 것이 떠오르다 해도 괜찮아 하고 충분히 위로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속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 해주면 한결 나은 거 같아. 내가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혼잣말이 종종 필요해. 말하기 대회 이전에도 했는데 더 잘 하게 된 것은 그 이후로 인거 같아. 이전에도 그래 너 알아, 너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 식의 위로였지. 지금은 그런 적 있었지라고 그냥 잘 아는 느낌... 떠올릴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야. (이소라)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요즘은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최대한 리렉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게 싫으니까 그냥 음악을 들으면 좀 더 그리고 있으면 편해진다. 주로 올라오는 감정은 분노, 억울함, 답답함이거든요. 요즘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니까 지나갈 거니까. (김정은)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떠오른 부정적 감정과 각성된 상태를 다루기 위해서 외부에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내면과 직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겨서 다시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에 대해 더 큰 중요없이 자신을 알아주는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진정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애도하며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도 괜찮아하고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을 거 같아', '지나갈 거니까' 라고 그 감정을 기꺼이 존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독거릴 수 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음

나는 엄청 잘 견디는 사람은 아닌 거 같아. 내가 솔직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나를 잘 알아주고 싶어. 까탈스러운 사람이 된 이유도 그렇고, 마냥 참지는 않는 사람이 되었지. (이소라)

아빠가 화가 나서 폭언을 하고 손을 들었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맞았지만, 지금 성인이고 애 엄마인데 나한테 손을 들다니 미쳐버리겠더라고. 아빠가 아니라 짐승 같고, 너무 싫었어. 싫다는 표현을 이제 와서 해야겠더라고. <중략> 당신이 만든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지 모르냐고 가정폭력 연관 지어서 하고 싶은 말하고 짐을 싸서 나왔버렸거든. (최미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주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에 주인이 되어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기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감정이나 자기표현을 잘 하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던 억압, 회피하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솔직하게 감정을 느끼는 대로 드러낸다. 자신의 감정, 욕구에 대한 내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상처받지를 않기 위해서 이전과 다르게 용기를 내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로 변화한다.

자기를 신뢰함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한 것도 아니

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런 과거에 대한 경험을 슬펐던 거, 화났던 것을 비난이 아닌 형태로 풀어낸 게 재미있었어. 자신감 생겼다는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런 것을 친구들과 만들어 왔다. 어떤 변화를 할 수 있게 된 어떤 기반이 된 거 같아. (이은선)

요즘 앞으로 생각보다 삶이 길구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채워나갈 것과 할 것들도 참 많잖아요. 조금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자유다. 다른 사람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읽어주느냐 받아드리냐에 따른다는 생각이 확신이 생긴 거죠. (하미란)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자신도 받아드릴 수 있다는 자기 수용과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게 된다. 이은선은 말하기 대화를 이후로 자기 자신이 불안한 상황에서 완충장치의 역할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느끼는 형태로 새롭게 자신을 평가한다. 하미란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읽어주느냐 받아드리고 확신이 서는'처럼 과장된 자존감이거나 타인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 비난을 하지 않고 내적인 평가를 신뢰한다.

타인, 세상과 온전하게 소통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세상과 타인에 대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친밀한 관계에서의 자신의 고착된 패턴을 알아차리고 변화를 꾀한다.

관계 내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의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하는 상호작용으로서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그리고 자신의 경계선을 열어 타인의 고통을 알아봐줄 수 있는 공감력이 확장되며 상대의 안녕과 '성장'을 돌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또 대안적 미래를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사회정의에 대한 목소리 내기를 통해서 사회와의 관계 맺기를 한다.

밀착된 관계로부터 적절한 거리유지함

20살 때부터 3년은 연애를 끊임없이 했어요. <웃음>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중략> 바뀌고 싶으면 스스로 변화해야하는 거고, 그 편이 더 편하고 쉽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김가영)

관계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연결된 문제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글썽요. 연애일까? 연애는 항상 잘 안되어서 <웃음> 나아진 게 뭐냐면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닌 거죠. 이제 끊기를 잘 하는 거죠. 예전에 못했던 거죠. 아닌 것은 아는구나. 집착을 안 하는 거죠. (하미란)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에서 연결을 간절히 원하여 의존하거나, 거절해서 고립되거나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에서 생긴 고착된 관계 패턴에 대

한 집착을 깨닫게 된다. 김기영은 연애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이 의존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 타인을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심리적 독립이 필요함을 알아차린다. 하미란은 심리적으로 저항이 느껴지는 청을 거절하면서 타인과 적절한 경계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고통을 안아줄 수 있는 너넵함

말하기 참여자들에게 일상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기가 회복하고 싶은 행동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죠. 나 여기 갈까 말까 너무 힘들까? 회복하는 게 힘들니까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와. 아픔도 받아드려 나는 왔으면 좋겠네. 나는 갈 거야. 나 요만큼 왔다 해봤다고 서로 자랑질 하는 거야. (최미희)

나도 그런 경험 있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힘들어 하는 거 나도 알아. 그거 힘든 거야. 누군가 새롭게 만나면 이야기 하게 될 경우가 있어. 다 이야기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한테는 편하게 말할 때가 있어. 다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소라)

자신의 고통을 정면통과해서 해방감을 느껴본 연구참여자들은 지지받고 싶은 마음을 알아봐주고 타인에게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여유를 경험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비슷한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조력한다. 이는 이런 타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연민하

는 마음 또한 길러짐을 알 수 있다. '그래도와 아픔도 받아드려', '너가 힘들어 하는 거 알아' 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다른 이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사회 정의를 향한 움직임

남자들이 성폭력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기사를 보면 떨리거나 분노를 하거나 그렇게 많지 하지 않잖아. 그런 무관하지 않아. 최근에 법이 바뀌었잖아. 잡년행동을 했던 게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어. 단체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많은 여자들이 부당함을 알고 이해하면 같이 하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잡년행동을 했던 거 같아. 완전히 잘 바뀐 것은 아니지만 바뀐 부분이 있잖아. 내가 이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뤄졌어. (이소라)

다는 안하지. 60분에 할 말이 너무 많아. 기존 틀이 있으니, 거기다 사례이야기 할 때 가끔 하지. 그런데 대처 능력이나 피해자의 오해든지 그런 것에 치중을 좀 하지. 피해자 관점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젠더 감수성을 넣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사례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하지. 사람마다 초급, 중급, 고급 다 다르다.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의식 수준이 다를 거라는 거지. (최미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성폭력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정치적인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된 이들은 사회의 변화에 관련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에서 성폭력 이슈가 사라질 수 있도록 목소리내기라는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사회와 관계를 맺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보호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비전에 동참한다.

원하는 생애사 건축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확장하고 경험을 통합하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좋아하는 것 하거나, 꿈이 바뀌거나 하는 모습에서 자기 삶에서 책임 있게 직면하는 상태를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만들어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이 있음을 아는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상과 자신의 삶에서 자기(self)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전념함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 내가 그래도 기 싫은 일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거. 그 거야. 일상에 만족할 수 록 과거에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에게 내가 억한 심정을 안 품는 거지. 억한 심정은 별로 안 느껴. 너 따위가 인생의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별로야.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지. 내 결정권 안에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

야. (이은선)

지금 잘 살고 있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는 거 계속 하는 거. 춤추는 것. 만족스러워 하는 게 있지. (이소라)

연구참여자들은 진정한 자기로서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전념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을 보여준다. 이은선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꿈, 목표,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좋아하는 이들과 사는’ 등으로 이를 충족시킬 계획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소라의 경우에도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자기로서 살아가는 면이 늘어난다. 이는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을 정립해 가며 자신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비전에 열망함

내 묘비명에는 생존자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나의 꿈인 거 같아.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 생존자 강사가 여기에 있다. 있었다. 앞으로도 강의를 쭉 하고 싶거든. 내가 70, 80살이 되든 쭉 하고 싶거든. 내가 죽을 때 묘비에도 남기고 싶은 거지. 열심히 강의하러 다녀야지. 그게 힘이 되거든. (최미희)

상담을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운동적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람이에요.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상

담이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개척을 해야 할 것도 있고, 여성주의 상담 같은 경우도 미개척분야이고, 해보고 싶다. <생략> 단지 요즘 유행하는 치유, 마음까지 돈으로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운동적인 부분으로서 일종의 연대 의식 같은 건데요.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예요. (하미란)

연구참여자들은 직업적 비전의 발견이라는 '성장'을 경험한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일을 통해서 기존의 갖고 있던 꿈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열망하는 일이 꿈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삶의 의미 발견과정에서 세상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시련이 주는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미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비전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하미란은 '미개척분야 해보고 싶음'을 통해 원하지 않았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역설을 경험한다.

또다른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듯이 연구참여자들에게도 남은 심리적 과제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성장'은 삶의 연장선으로서 이전보다 심리적 부담감은 줄어들었지만 성폭력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과 2차가해에 대한 상처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음을 밝힌다.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인정은 전경으로 있는 미해결 과제를 보여주기도 하고 미해결 과제를 배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2

차 가해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거나 사건을 해결해서 보호받았다는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지 기반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남아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으로 보여준다.

미해결 과제를 인정함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있어. 정말 내가 그 때로 돌아가 버리면, 집에 돌아가서 마음이 불편해지겠지. 균형을 잘 잡아야겠구나. 이 이야기가 편안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담담하게 이야기한 거 같고, 여전히 다 지나간 일은 아닌 거 같아. (이은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심장이 뛰는 거지. 떠오르는 생각을 자꾸 안 떠오르게 하려고 내 머리를 막 밀어 넣지. 그러니까 아프지 머리가. 두통처럼. 기억이 나니까 넌 또 왜 기억해 그렇게. 심장이 먼저 뛰고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또 왜 떠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쁜 점이 떠오르니까 그래. 아직 까지도 그러지 못해. 그 건 두려움과 공포심 같아. 그 때 느꼈던 거야. 아직까지도 작지만 느낌이 있는 거지. (최미희)

인간의 삶이 살아 있는 동안 완결이 아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심리적 부담감은 줄어들었지만 성폭력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 인정은 전경으로 있는 미해결 과제를 보여주기도 하고 미해결 과제를 배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 지나간 일은 아닌 거 같아’, ‘아직까지도 작지만 느낌이 있는 거지’와 같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만 끝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2차 가해의 상흔이 남아있음

오히려 제 동료, 대표 일련의 태도들이 마음에 걸려요. 그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태도에 대한 분노가 저한테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때는 괜찮다가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열이 받는다. (김정은)

지금은 원 사건보다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주변인들이 저를 피해화시켰던 것이 주된 문제예요. 큰 말하기까지 하면서 설명하지 못한 것을 다 알아준 거죠. 그러면서도 과제로 남아있는 게 있죠.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이야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요. <중략> 두려운 거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가 무서워요. (하미란)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망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밀한 주변인들이 주는 상처가 원사건보다 더 크게 지각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심리적 적응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배신감을 느낀다. 연구참여자들은 제대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거나 사건을 해결해서 보호받았다는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지 기반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남아있다. 김정은은 ‘그

태도에 대한 분노가 많이 남아 있음’에서 주변인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기대가 있었는데 좌절됨으로 인한 상처가 있고, 하미란은 ‘원망하고 있는 게 피해자화시키는 것’과 같이 피해자로 박제화되어 무력감의 동반시켰다는 느낌을 받는다.

논 의

지금까지 기술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은 성폭력에 대한 자각을 계기로 치유과정을 자신의 심리상태에 일정 정도 집중함으로써 심리적 변형이 일어난다. 성폭력 사건 그 자체는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의 지지 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삶에 있어서 ‘성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성폭력에 대한 외상적 반응인 재경험, 회피, 인지 및 기분의 부정적 정서 등을 경험했으나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정서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삶에 만족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치유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통찰력,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 용기, 모험심, 고통에 대한 강한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역량강화(empowerment)가 되었다.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 도전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좋아짐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Bryant(2005)가

외상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매일 매일 생존하는(surviving)에서 '성장', 고양, 충만함을 느끼는 외상을 통한 '성장'으로 역량 강화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외상을 통한 '성장'을 경험한다. 자아 존중감이 높아졌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 향상, 대인관계에서의 성숙, 자아실현에 집중하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기는 등의 자신, 타인 사회와의 관계성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Tedeschi(1996)가 밝힌 외상을 통한 '성장'의 요소 3가지인 자기 신뢰, 관계에서 변화, 삶의 새로운 우선순위와 의미부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외상의 영향력과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외상을 통한 '성장'으로서 자신, 타인, 삶, 세상에 대해서 더 실존적인 자세로 접근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더 깊게 세상에 뿌리내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직업적 비전을 강화시키거나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는 등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자아 실현적 측면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연구(Grossman, 1999)에서 성폭력 생존자중 22%가 성취로서의 성공을 이룬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정면통과하며 도전하고 적극성, 강인함을 경험함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며 직업적 성취, 좋아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자 한다. 이런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많은 상담에서 상담의 방향성, 목적으로서 갖고 가고자하는 측면으로서 과거 외상에서 자유로워지면 미래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상이 생겨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성폭력과 관련된 미해결 과제와 2차가해의 상처가 남아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은 외상을 통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완전히 완결된 사건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한 '성장'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 이슈에 대한 인정을 통해 앞으로 계속 외상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도전, 투쟁, 고통 중에 긍정적이 의미를 찾는 일관된 관찰을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Gromppman, 2004). 미해결과제나 2차가해의 상처는 외상을 통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의 구축, 당사자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 생애 초기에 발생한 애착외상은 이후에 나타나는 외상에 더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폭력 이외에도 어린 시절 원가족에 의한 정서적 학대나 폭력 등 다른 외상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중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어린 시절의 부모의 가정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로 인한 무력감과 관련이 있다고 인터뷰한 것을 보아 성폭력에 관한 치유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심리치료를 원하는 외상 생존자들이 대부분이 다양한 외상을 경험했고 그 중에서 많은 수가 아동기의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다(트라우마케어팀, 2014). 그리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보이는 증상은 피해자의 발달 단계, 성폭력 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이전의 발달적 외상 유무, 귀인방식, 대처 기제, 사회적 지지 체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권혜수, 2014; 김지혜, 2011; 신기숙, 2003; 오현숙,

2003).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외상 생존자들은 PTSD 증상 이외에도 충동 및 분노 조절, 해리성 장애, 우울증, 대인관계에 문제 등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성폭력 이외의 대인관계 외상 등에도 주목하면서 다른 외상은 없는지 상담 초기에 확인해, 상담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상담자는 외상이론에 정통해서 다루어야 할 외상의 종류와 내담자의 특징 파악하여 외상 유형을 평가하고 각각의 유형마다 다른 접근방식으로 상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담관계에서 안정적인 신뢰관계 구축, 성폭력 피해의 관련된 정서적 고통의 경감,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 필요시 사회적 자원 연계 등을 하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외상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권해수(2014)는 성폭력 피해의 치유를 성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이 일상적인 삶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외상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경계를 확장시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보았는데 성폭력 피해의 치료적 접근 또한 외상의 영향력이 현저히 낮아져 PTSD증상이 사라지고 외상을 애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서 성폭력에 있어서 외상을 통한 ‘성장’에 관련된 질적연구가 국내외 연구가 초기단계인 상황아래서 외상을 통한 ‘성장’의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이를 통해서 수동적인 피해자(victim)나 잘 살아남았다는 생존자(survivor) 모델로서는 설명이 부족한 이

들이 어떤 측면에서 역량이 강화되고 삶을 더 성숙하게 살게 되었으며,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의 증상에 함몰되지 않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믿으며 상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폭력이 있을 경우 ‘피해자’로 규정되면서 무기력한 존재로 박제화되기 쉽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고통에 직면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자기 가치감을 유지시키며 타인에게 더 큰 공감과 자비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 또한 성폭력을 경험한 내담자를 ‘피해자화’하지 않으며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실존적 존재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촉진, 노력해야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이 성폭력에 있어서 외상을 통한 ‘성장’을 정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인터뷰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성폭력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입장에서 그 과정을 재의미화시킬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기에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실제 경험과 반드시 일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시에 연구자나 연구참여자가 이해하고 느꼈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것

이 일치하고 어떤 것이 현재 느끼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상담이나 집단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치유기간을 일정정도 거쳤고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는 것에 비교적 자유로우며,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설명하는 게 자유롭고 외부 자원도 잘 활용하는 연구참여자와 달리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성폭력을 외부에 개방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에 대해서 수년간 고민하고, 사회적 활동, 상담 등 다각적 측면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를 해 온 사람으로서 단기간 심리치료에만 집중한 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가 수행된다면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경험의 양상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해수 (2002).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해수 (2007).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분과, 13(4), 34-66.

권해수(2014). 성폭력피해자의 치유상담 내용 구성을 위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 연구, Vol. 15, 1-15.

김지혜 (2011). 아동기 성폭력 경험의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이근호 (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이명희 (2003).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트라우마케어팀 (2014). 트라우마워크샵 초급, 중급 자료집.

하진의 (2013). 성인 애착 불안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반추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노을 (2005). 외상 후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llen, Jon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ub. 권정혜 외(역). 트라우마 치료의 치료. 학지사. (2010)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 (1), 20-28.

Bryant Davis (2005). *Thriving in the wake of trauma*, Preger.

Graham, D. L. R., Rawlings, E. I., & Rigsby, R. K. (1994). *Loving to survive: Sexual terror, men's violence, and women's liv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Gromppman, J. (2004). *The anatomy of hope: How people prevail in the face of illness*: New York, Random House.

Grossman, F. K., Cook, A. B., Kepkep, S. S., & Koenen, K. C. (1999). *With the phoenix rising: Lessons from ten resilient women who overcame the trauma of childhood sexual abuse*. San Francisco:

- Jossey-Bass.
- Hall, Joanne M. (2009). Thriving as Becoming Resolute in Narratives of Women Surviving Childhood Mal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79, No. 3, 375-386.
- Konish, T., (2008). PTSD, 女性のトラウマの治療. *Human Mind*, No. 7, 130-141.
- O'Leary, Virginia E., Ickovics, J (1995). Resilience and thriving in response to challenge: an opportunity for a paradigm shift in women's health.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Women's health*, 121-142.
- O'Leary, Virginia E. (1998). Strength in the Face of Adversity: Individual and Social Thriving.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4, No. 2, 425-446.
- Parry, C., Chesler, Mark A. (2005). Thematic Evidence of Psychosocial Thriving in Childhood Cancer Survivor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1-230.
- Poorman, Paula B. (2002). Perceptions of thriving by women who have experienced abuse or status-related oppress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51.
- Spiegelberg, H. (1970)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Springer Netherlands(최경호 역(1991), 현상학적 운동 1, 이론과실천)
- Taylor, Janette Y. (2004). Moving From Surviving to Thriving: African American Women Recovering From Intimate Male Partner Abuse,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8, No. 1214-253. *Psychology*, Vol. 9. No. 3, 262-280.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신경림, 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동녘)

1차원고접수 : 2014. 10. 17.

심사통과접수 : 2014. 12. 22.

최종원고접수 : 2014. 12. 24.

On the Meanings of Thriving Experiences through Sexual Violence

Choon Ok, Kong

Bong whan,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meanings of thriving experiences after sexual violence with detailed descriptions. The research participants are six women who are in their 20th to 40th. They participated counseling or special programs for sexual violence victims for certain periods. The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December 2011 to May 2014. During the period, I had one or three tim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each participant. The access for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through snow balling, the personal acquaintances of mine, or introductions by my acquaintances. In my analysis, the six overarching themes and nineteen specific themes have come up with from the interviews. The higher themes are <playing the variations of healing>, <free from the traumatic memories>, <self-respect>, <communication wholly with others and the world>, <construct the life histories as one hope>, <to move forward for thriving experience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ositive and thriving experiences after sexual abuse within the psychological framework. Heretofore,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thriving experiences after sexual abuse is at the early stage of discussions and research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addition, the research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counselors to believe in the resilience of clients, not to be diverted by the symptoms of clients, rather firmly seeking the goals and directions of counseling in the consultation scen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those who have contemplated for a long time about their sexual abuse experiences and participated social activism which provided them the opportunities to empower themselves. I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those who only have taken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results would reveal different aspects of experiences.

Key words : thriving, sexual violence, trauma, phenomenological method